

중1-1
국어
천재(노)

2026 중1-1 국어 천재(노) | 4(1) 먹고 싶다, 수박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해당 소단원에서 학습한 작품 속 갈등 장면과 갈등의 유형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인물들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인물들의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떤 유형의 갈등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갈등이 발생하고 해소되는지 잘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다음 중 문학 작품 속 갈등에 관해 적절히 설명한 것은?

- ① 갈등은 사건을 일으킬 뿐 주제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없다.
- ② 갈등은 작품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외적 갈등에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만 포함된다.
- ④ 갈등은 인물의 성격, 가치관 등과는 무관하다.
- ⑤ 갈등은 인간관계 속에서만 나타난다.

【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일어난 그 일은 마치 한바탕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했다. 체육 시간에 여유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게 문제였다. 줄넘기 평가를 하는 날이었다.

“적당한 데서 연습하고들 있어. 부르면 짹싸게 오고.”

노란 선글라스를 낀 체육 쌤의 말이었다. 아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세영, 지원, 은비, 인정, 영주와 함께 뭉쳐서 갔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육인방이다. ㉡콩 한 개도 여섯 쪽으로 나뉘서 먹을 수 있다고 서로 믿는 사이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나) “왜에!” / 지원이는 친구들을 올려다보며 애절한 가락으로 호소하듯 내뱉었다. 지원이의 호소에 누구도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갑자기 근심에 휩싸인 지원이가 일부러 울음 섞인 소리를 내면서 다시 애원조로 말했다.

“수박 먹고 싶지 않아? 너희들.” / “먹고 싶긴 하지…….”

인정이가 대답했다. 나도 먹고 싶다고 말을 보태려는데, 은비가 먼저 말했다. / “난 안 먹을래. 그, 리, 고.”

글자를 끊어서 또박또박 발음한 뒤, 은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덧붙였다.

“나는 빠지겠어. 이 사건은 나와 무관한 거야. 난 결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어.”

은비는 말을 하는 중에도 걸음을 옮겨, 마침내 조희대에서 바깥으로 나가 버렸다. 머뭇거리던 영주도 은비를 따라갔다.

(다) “아냐, 다 같이 먹자.” / “뭐?”

지원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영이, 인정이도 마찬가지였다.

“담임 쌤 오시면 말해서, 애들 다 같이 먹자고.”

모든 수업이 끝났으므로, 담임이 종례를 하기 위해 곧 교실에 올 것이었다. / “미쳤어? 별점 먹을 거야.” / “엄청 혼날지도 모르고.”

“다른 애들한테 욕먹을걸.” / 셋이서 한마디씩 지껄었다. 나는 조용조용 차분하게 내 생각을 주장했다.

“담임 쌤이 말이야. ‘허허 자식들, 왜 그랬어? 뭐 어쩌겠냐? 이왕 따 온 수박이니 나눠 먹자. 허허.’ 하고 말하실 거 같애. 그럼 얼마나 좋아. 우리 지금 이 찢찢한 기분도 다 없어지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수박 한 쪽씩 먹고 말이야. 아, 수박이 한 개밖에 안 되니까 모자라면 우린 안 먹어도 되고. 난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어때?” / “찢찢.”

세영이가 침을 입속에서 모아 소리를 내더니 말했다.

“담임 쌤이 그렇게 안 나올 거 같은데. 평소에 하던 태도를 불작시면 말이지. 무조건 벌점 먹는다에 난 한 표!”

“난 크게 혼난다에 한 표! 넌 우리 학교 3대 악당을 너무 물렁하게 본단 말이야.”

2. 밑줄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담임 쌤은 평소에도 엄한 분임을 알 수 있다.
- ② ‘나’는 수박을 반 친구들과 나눠 먹음으로써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한다.
- ③ 영주는 은비를 따라가 수박 사건에서 빠졌다.
- ④ ‘나’는 세영, 지원, 은비, 인정, 영주와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 ⑤ ‘나’는 지원이가 수박을 딴 뒤 호소했을 때 곧바로 응답했다.

3. ㉠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어서 꿈처럼 보이는 일을 목격했다.
- ② ‘나’가 너무나 꿈꾸던 일이 일어나 진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 ③ 너무나 이상한 꿈이어서 믿기지 않았다.
- ④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어서 현실성 없게 느껴졌다.
- ⑤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꿈을 꾸었다.

4. 보기는 ㉠과 관련이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를 풀어 쓴 것이다. 이 사자성어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 자기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 ① 지기지우(知己之友)
- ② 평생지기(平生知己)
- ③ 청출어람(靑出於藍)
- ④ 수어지교(水魚之交)

⑤ 죽마고우(竹馬故友)

5. (다)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박을 어서 먹고 싶지만 참아야 하는 지원이의 내적 갈등
- ② 수박을 딴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알릴 것인지에 관한 ‘나’와 친구들의 외적 갈등
- ③ 다른 사람이 기른 수박을 훔쳐 사회의 규칙을 어긴 ‘나’와 사회의 외적 갈등
- ④ 수박을 따 교칙을 어긴 사건에 대해 훈육해야 하는 담임 선생님과 ‘나’의 외적 갈등
- ⑤ 수박을 다 같이 나눠 먹어야만 하는지 고민하는 ‘나’의 내적 갈등

【6~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때 갑자기, 세영이가 외쳤다.

“어머, 어머! 애들아, 저것 좀 봐.”

눈들이 한꺼번에 세영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쏠렸다.

“보여? 애들아, 보이지? 수박 말이야.”

진짜로 있었다. 수박이었다. 조희대 옆, 비탈진 잔디밭, 늙은 겹벚꽃 나무 아래, 수박이 있었다. 단 한 개. 수박 포기도 딱 하나였다. 오리발처럼 갈라진 길쭉한 초록 이파리들은 그닥 싱싱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박은, 생각보다 컸다!

(나) “아, 저거 우리 따 먹으면 안 될까? 수박이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왜 그동안 못 봤을까?”

내가 이상한 흥분에 휩싸여 마구 말을 쏟아 내고 있을 때, 벌처럼 웅 하고 수박에게로 날아간 인간이 있었다. 지원이었다.

“먹고 싶으면 따지 뭐.”

아아, 그 아무도 말할 새가 없었다. 마치 오랜 세월 수박 농사를 지어 온 농부라도 되는 양, 아주 능숙한 솜씨로 지원이는 수박을 톡 따서, 가슴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아, 너!”

거의 비명에 가까운 짧은 소리가 모두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순간 정적. 입을 벌린 채 아이들은 얼음이 되었다. 지원이 표정이 가장 볼 만했다. 수박을 가슴에 안고 우는 듯 웃는 듯 두려운 듯 오묘한 표정.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지원이다웠다.

“왜에!”

지원이는 친구들을 올려다보며 애절한 가락으로 호소하듯 내뱉었다. 지원이의 호소에 누구도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갑자기 근심에 휩싸인 지원이가 일부러 울음 섞인 소리를 내면서 다시 애원조로 말했다.

“수박 먹고 싶지 않아? 너희들.”

“먹고 싶긴 하지…….”

인정이가 대답했다.

(다) 나도 먹고 싶다고 말을 보태려는데, 은비가 먼저 말했다.

“난 안 먹을래. 그, 리, 고.”

글자를 끊어서 또박또박 발음한 뒤, 은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덧붙였다.

“나는 빠지겠어. 이 사건은 나와 무관한 거야. 난 결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어.”

은비는 말을 하는 중에도 걸음을 옮겨, 마침내 조희대에서 바깥으로 나가 버렸다. 머뭇거리던 영주도 은비를 따라갔다. 수박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세영이는 은비를 보다가 지원이를 보다가 허둥대며 ‘어떡해, 어떡해.’를 연발하더니 엉뚱하게도 줄넘기를 들고 줄을 넘기 시작했다.

멀리서 시끌시끌 아이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가장 괴로운 사람은 당연히 지원이었다. 수박을 안은 채 엉거주춤 선 지원이. ㉡나는 지원이를 구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눈에 띄는 대로, 지원이의 신발주머니를 들고 달려갔다.

“얼른 넣어!”

신발주머니의 주둥이를 벌리고 내가 말했다. 지원이는 수박을 딸 때처럼, 재빠른 동작으로 수박을 집어넣었다. 팔을 두어 번 흔들며 보던 지원이는

“휴, 살았다.”

하고 숨을 폭 내쉬곤 멀리서 다가오는 아이들을 힐끔 바라보았다. 신발주머니 깊이가 얕아서 수박 등이 손등만큼 내보인다.

“야, 보인다. 수박이 너무 커.”

수박이 큰 것이 결코 탓 될 일도 아니건만, 지원이는 수박이 큰 탓을 하면서 사방을 휘휘 둘러보다가

조희대 난간에 걸려 있던 체육복 점퍼를 벗겨서 신발주머니를 감쌌다.

“야, 그거 내 건데.”

세영이가 외쳤지만, 지원이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졸지에 내가 수박을 끌어안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야 체육복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겠지만.

6.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사건 발단의 중심 소재가 등장하는 단계이다.
- ② 인물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 ③ 갈등이 극에 치달아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있다.
- ④ 일련의 사건으로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한다.
- ⑤ 이전의 갈등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7. 위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수박을 보고 흥분을 하며 먹고 싶어 했다.
- ② 멀리서 다른 아이들이 오자 지원이는 뽐내고 싶어 했다.
- ③ 세영이가 조희대 옆 잔디밭에서 수박을 발견하였다.
- ④ 수박을 숨기기 위해 지원이의 신발주머니에 집어넣었다.
- ⑤ 지원이가 체육복 점퍼를 벗겨서 신발주머니를 감싸고 ‘나’가 수박을 끌어안게 되었다.

8. <보기>는 ㉠, ㉡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원’과 ‘나’의 성격을 서술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에서 지원은 친구들이 말릴 새도 없이 수박을 따는 모습을 통해 ()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에서 일단 문제에 처한 지원이 먼저 도우려고 하는 () 모습이 나타난다.

- ① 추진력 있는, 성급한

- ② 추진력 있는, 따뜻한
- ③ 충동적인, 성급한
- ④ 충동적인, 책임감 있는
- ⑤ 성급한, 충동적인

9. (다)에서 은비가 세영이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아.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즐기는 것이 좋겠어.
- ②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공감해 주는 것이 먼저야.
- ③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보다는 확실하게 너의 의견을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 ④ 우리 모두 친구들이니까 서로 도와야 해. 친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야말로 도와야 할 때야.
- 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해 봐.

【10~1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실에 들어가서도 우린 한 덩어리로 뭉쳐서 앉았다.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눠야 했다. 수박이 든 신발주머니는 책상 밑에 넣었다. 그리고 우리 넷은 머리를 가까이 모았다. 나는 책상 하나 건너에 앉은 은비를 보았다. 은비는 평온한 얼굴로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은비 옆에 앉은 영주와는 눈이 마주쳤다. 영주는 자주자주 우리 쪽을 보고 있었던 거다. 영주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은비의 평온한 옆얼굴을 보면서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부러움과 서운함. 은비와 나는 중학교에 들어와 2년 연속 같은 반이 되었다. 아홉 개 반 중에서 같은 반이 될 확률은 높지 않았다. 보통 서너 명에 그친다. 더구나 지난해의 절친이 다시 같은 반이 될 확률은 정말 낮았다. 은비와 난 1학년 때 절친이었다. 물론 지금은 더욱더 절친이다. 그런 은비가 지금 저렇게 무심하게 나를 돌아보지조차 않고 있다. 절친이란, 무슨 일이든 같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 지원이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나도 가야 되는 건가? 수박을 탄 사람은 지원이니까, 지원이 보고 있어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 세영이도 인정이라도 내놓고 그런 말은 없었지만, ‘미안해.’라는 말이 ‘지원이 네 책임이야.’라는 말과 동의어로 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도 ‘지원아, 미안하다.’ 하고 가 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줄지어 일어나는 통에 말을 못 하고 내가 우물거리고 있을 때, 지원이가 먼저 말했다.

“저, 다정아, 나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수박. 나 신발주머니 가져가야 되는데.”

㉠정말 뜻밖의 말이었다. 지원이의 말을 나는 얼른 이해할 수가 없었다. / “무, 무슨 말이야? 너도 간다고? 수박은 어떡하고.”

(다) “진짜 그만해. 들킨다구.” / “들킨 뭘.”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내가 한 두어 번 주의를 주면, 곧 하던 행위를 멈추는 게 보통인데 오늘 지원이는 뜻밖이었다. 지나칠 정도로 수박에 집착하는 모습이였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컸는데, 그것이 잘 해결된 것에 대한 감정이 넘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다.

“고마워서 그래?” / “뭐라고?”

지원이는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 나는 나만의 생각을 불쑥 말했으므로, 지원이에게는 뜬금없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말을 수정했다. / “내가 수박 문제를 해결하니까, 고맙나고.”

“으응, 그렇지 뭐. 그래, 고맙다고 해야 되나? 너는 수박이 생겼는데, 나한테 안 고맙나? 이거 말아야.”

10. 윗글을 읽고 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정이는 친구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리 있는 성격이야.
- ② 지원이는 평소에는 선을 넘지 않게 장난을 쳤으나 보네.
- ③ 영주는 은비와 달리 다른 친구들을 의식하지 않고 있구나.
- ④ 지원이는 수박을 맡아 준 다정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지는 않구나.

- ⑤ 지원이가 자꾸 가방을 건드려서 다정이는 수박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했겠구나.

11. ‘나’가 ㉠과 같은 생각을 한 까닭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지원이가 수박을 따서 문제가 시작되었으므로 당연히 지원이가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② 친구들이 이미 놀기로 약속을 해 놓고 자신에게만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지원이가 갑자기 ‘나’의 신발주머니를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④ 지원이와 둘이 남았을 때 수박을 같이 먹기로 했기 때문이다.
 ⑤ 지원이가 자신과 함께 수박을 처리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12~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거 어디서 난 거야? 혹시, 조희대 옆에서 딴 거?”

가슴이 쿵 찢렸다. 지원이도 똑같은 느낌이었나 보다. 입을 삐죽하며 나에게 두 손을 벌려 보였다. 말없이 선 지원이와 나를 번갈아 보며 민아가 말했다.

“맞구나. 대박! 야, 뭘 짓을 한 거니? 너희들 큰일 났다. 그거 교장 쌤 수박이야.” / “뭐?”

두 사람 입에서 놀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마 이때 지원이와 내 눈의 크기는 황소 눈만 했을 것이다.

(나) “지원아, 이건 아닌 거 같아.” / “뭐가, 아냐, 빨리 갖다 놓고 가자. 에이, 짜증 난다, 정말. 망할 수박.”

지원이 말이 거칠어졌다. 얼굴도 많이 일그러졌다.

“너 가기 싫으면 내가 할게. 가방 이리 줘. 어차피 내가 땀으니까, 내 거잖아.”

지원이가 가방을 잡고 뺏으려 들었다. 나는 가방

을 강하게 잡았다. 지원이보다는 내가 힘에 있어서 한 수 위다. 지원이는 힘이 약해 맘대로 되지 않자, 발을 구르며 식식거렸다. 눈에선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 “너 정말 왜 그래? 너만 양심적이야? 나는 도둑이구?”

지원이는 말을 하다 보니까, 더욱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우리가 친한 친구라는 것도 잊어버린 게 틀림없었다. 나에게 이런 말을 쏟아 놓고 뛰어가 버렸다. / “그래, 잘난 네가 알아서 해. 난 갈 거야.”

정말, 진짜, 욕하기 대장, 지원이답다. 나는 달아나는 지원이 뒷모습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다) 지원이와 내가 아웅다웅하는 걸,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던 민아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돌아서서 별관 음악실로 가 버렸다. 마침내, 나는 우두커니 혼자 서 있게 되었다. ㉠갑자기 가방이 너무나 무거웠다. 마치 가방 안에 바윗덩어리라도 들은 것 같았다. 가방을 들고 서 있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지퍼를 조금 열어서 수박을 내려다보았다. 수박은 가방 안에서 싱싱했다. 날은 더워 땀이 흐른다. 녹색 바탕에 검푸른 줄이 죽죽 그어진 그 수박을 바라보고 있자니, 입속에 침이 고인다. / ‘이걸 어찌해야 하나?’

반을 똑 갈라 랩을 씹워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먹거나, 고무 함지에 얼음덩이와 함께 통째로 넣어 뒀다가 큼직하게 찌꺼 갈라 먹었으면.

혹시 또 아냐. 요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엄마, 아빠에게 이 수박이 한 번 웃음을 줄지도 모른다. 저녁에 수박 파티를 벌이면서, ‘그게 학교 화단에 있었어? 웃긴다, 애.’라는 엄마 말에, 유쾌한 한 때가 될 수도 있다.

12. ‘나’가 ㉡와 같은 생각을 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박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서 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 ② 홀로 수박을 처리하게 된 부담감과 친구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 ③ 무거운 수박을 친구들과 나눠 들지 못하고 혼자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 ④ 민아는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떠나 버렸기 때문이다.
- ⑤ 지원이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짐까지 나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13. <보기>는 [A]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순서대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기>

[A]에는 얼떨떨하게 수박을 보며 () 생각하나, 수박을 ()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나’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① 먹음직스럽다고, 먹겠다는
- ② 먹음직스럽다고, 버리겠다는
- ③ 먹음직스럽다고, 가져다주려는
- ④ 너무 무겁다고, 버리겠다는
- ⑤ 너무 무겁다고, 가져다주려는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담임 쌤 오시면 말해서, 애들 다 같이 먹고.”

모든 수업이 끝났으므로, 담임이 종례를 하기 위해 곧 교실에 올 것이었다.

“미쳤어? 별점 먹을 거야.”

“엄청 혼날지도 모르고.”

“다른 애들한테 욕먹을걸.”

㉠셋이서 한마디씩 지껄었다. 나는 조용조용 차분하게 내 생각을 주장했다.

(나) ㉡인정과 세영이의 극구 반대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지원이도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말 없는 지원이의 그 행동이 더욱 견고한 반대 표시로 느껴졌다. 난 답답했다. 왜 애들은 뉘우칠 줄을 모를까. 나도 이쯤에서 손을 떼 버릴까. 나는 다시 은비를 바라보았다. 초연하고 편안한 모습. ㉢지

원이의 우발적인 행동에 은비는 재빠른 판단으로 결단을 하였다. 하지만 난 어쩔가. 우유부단한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알량한 우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잘못된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나도 사실 수박을 따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지원이가 똑 따 버렸을 때, ‘야아.’ 하고 외쳤지만 속으로 슬며시 쾌감도 있었던 걸 희미하게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을 떼겠다고?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들을 설득해 보았다.

“애들아, 그렇게 하자. 담임 쌤이 별점 먹이면 먹고, 혼내시면 혼나자. 그게 속 편할 거 같애. 응?”

나는 애절하게 호소하는 눈빛을 세 친구에게 보냈다. 반응은 싸늘했다.

(다) ㉣우리 넷이 수박 처리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담임이 불쑥 교실에 나타났다. 아이들이 제각각 떠들던 말소리를 낮추며 제자리를 찾아서 앉았다. 담임은 실내를 한 바퀴 빙 둘러본 다음,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별일 있었니?”

“아뇨, 없었어요.”

㉤아이들이 늘 하던 습관처럼 합창을 했다. 담임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각자 위치로.”

담임은 교실을 나갔다. 담임은 바람처럼 교실을 다녀간 것이다. 나는 수박 이야기를 할 틈을 잡을 수 없었다. 아니 담임이 ‘별일 있었니?’ 하고 물었을 때가 수박 이야기를 할 틈이었지만 나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 담임이 ‘별일 있었니?’ 하고 물었을 때, 인정이, 지원이, 세영이가 한꺼번에 나를 쳐다 봤었다. ㉥그때 만약, ‘내가 수박을 따어요!’ 하고 말했다면? 그건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일까, 친구들을 악에서 구하는 행위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라) “그래, 잘난 네가 알아서 해. 난 갈 거야.”

정말, 진짜, 욕하기 대장, 지원이답다. 나는 달아나는 지원이 뒷모습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지원이는 저렇게 가 버려선 안 되는 거였다. 어째서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원이와 내가 아웅다웅하는 걸,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던 민아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돌아서서 별관 음악실로 가 버렸다. 마침내, 나는 우두커니

혼자 서 있게 되었다. 갑자기 가방이 너무나 무거웠다. 마치 가방 안에 바윗덩어리라도 들은 것 같았다. 가방을 들고 서 있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설의 인물 제시 방법은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다. 직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드러내는 방법으로 ‘말하기’라고도 한다. 간접적 제시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보여주기’라고도 한다.

- ① 직접적 제시를 통해 지원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 ② ‘나’의 성격은 직접적 제시를 통해 나타난다.
- ③ 말하기 방법을 통하여 ‘나’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다.
- ④ ‘은비’와 ‘나’의 성격을 대조하여 ‘나’의 성격을 나타낸다.
- ⑤ 말하기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의 성격에 대한 상상은 제한이 된다.

15. <보기>는 ㉠~㉣의 시점에 대한 서술이다. 빈칸에 들어갈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보기>

㉠, ㉡, ㉢, ㉣은 () 상황에 대한 진술이고, ㉤은 ‘나’가 () 시점에서 ()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는 진술이다.

- ① 현재 - 과거 - 미래
- ② 현재 - 미래 - 과거
- ③ 미래 - 현재 - 과거
- ④ 과거 - 현재 - 미래
- ⑤ 과거 - 현재 - 과거

【16~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일어난 그 일은 마치 한바탕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했다. 체육 시간에 여유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게 문제였다. 줄넘기 평가를 하는 날이었다.

(나) “적당한 데서 연습하고들 있어. 부르면 짹새게 오고.”

노란 선글라스를 낀 체육 쌤의 말이었다. 아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세영, 지원, 은비, 인정, 영주와 함께 뭉쳐서 갔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육인방이다. 콩 한 개도 여섯 쪽으로 나눠서 먹을 수 있다고 서로 믿는 사이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자리 잡은 곳이 조희대 위였다. 그곳은 시멘트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맨땅에서 줄을 넘는 것보다 나았다. 하지만 줄넘기는 뒷전이었다. 넘는 동안 마는 동안, 별 영양가 없는 수다로 시간을 보냈다.

(다) “먹고 싶으면 따지 뭐.”

아아, 그 아무도 말릴 새가 없었다. 마치 오랜 세월 수박 농사를 지어 온 농부라도 되는 양, 아주 능숙한 솜씨로 지원이는 수박을 툭 따서, 가슴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야, 너!”

거의 비명에 가까운 짧은 소리가 모두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순간 정적. 입을 벌린 채 아이들은 얼음이 되었다. 지원이 표정이 가장 볼 만했다. 수박을 가슴에 안고 우는 듯 웃는 듯 두려운 듯 오묘한 표정.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지원이었다.

(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체육 시간은 끝이 나 버렸다. 나와 지원이, 세영이와 인정이는 잘 감춘 수박을 끌어안고 교실로 들어갔다. 다른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가운데에 두고, 세 아이들이 보호하면서 걸었다. ㉠우리 넷의 눈빛 교환은 은밀했다. 다른 사람들 몰래 우리만의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꽤 짜릿한 맛이 있었다. 더구나 뭔가 조금은 찝찝한 일, 곧 결코 선한 일이 아니며 들통이 난다면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한 비밀. 공범자로서 서로를 지켜 줘야 한다는 희한한 사명감까지 생기는 그것. 누가 심어 가꾼 수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

공의 장소에 심어져 있었으므로 누구든 발견한 사람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이건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다. 수박은 너무나 잘 가꿔져 있었기 때문이다. 수박 줄기 주변은 잡초를 제거하면서 흙을 돋워 놓는 등, 사람의 손길이 확연했다. 당연히 수박이 저절로 나서 자랐다면 그렇게 상품 가치가 있을 정도로 되진 못했을 것이다. 정성을 들여서 가꾼 사람이 있는 게 분명했다. 마음이 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 서로 입 밖에 내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할 게 틀림없었다. 눈빛만 봐도 안다.

(마) 나는 은비의 평온한 옆얼굴을 보면서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부러움과 서운함. 은비와 나는 중학교에 들어와 2년 연속 같은 반이 되었다. 아홉 개 반 중에서 같은 반이 될 확률은 높지 않았다. 보통 서너 명에 그친다. 더구나 지난해의 절친이 다시 같은 반이 될 확률은 정말 낮았다. 은비와 난 1학년 때 절친이었다. 물론 지금은 더욱더 절친이다. 그런 은비가 지금 저렇게 무심하게 나를 돌아보지조차 않고 있다. 절친이란, 무슨 일이든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에 서운했다. 그러나 부러움이 더 컸다. ‘그건 옳지 않아.’라고 서슬 푸르게 손을 딱 때 버리는 그 결단성. 부러움을 넘어서 그런 결단성을 가진 은비가 절친이라는 것이 은근히 자랑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은비가 빠진 채 수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바) 수박을 딴 사람은 지원이니까, 지원이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 세영이도 인정이기도 대놓고 그런 말은 없었지만, ‘미안해.’라는 말이 ‘지원이 네 책임이야.’라는 말과 동의어로 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도 ‘지원아, 미안하다.’ 하고 가 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줄지어 일어나는 통에 말을 못 하고 내가 우물거리고 있을 때, 지원이가 먼저 말했다.

(사) 나는 선뜻 대답을 못 했다. 지원이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다정아, 민아 말대로 하자. 얼른 수박 갖다 놓자. 갖다 놓고 집에 가게. 응?”

지원이는 벌레 씹은 얼굴이 되어 있다. 조금 전 교실에서 나와 건물 계단을 내려올 때 즐거워하던 얼굴과는 전혀 딴판이다. 나는 망설여졌다. 이건 작은 잘못에 대한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력 접촉제가 땅과 내 발바닥을 붙여 놓은 느낌이 들었다. 지원이와 민아가 나를 잡아당겼지만 내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 지원이는 말을 하다 보니까, 더욱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우리가 친한 친구라는 것도 잊어버린 게 틀림없었다. 나에게 이런 말을 쏟아 놓고 뛰어가 버렸다.

“그래, 잘난 네가 알아서 해. 난 갈 거야.”

정말, 진짜, 욕하기 대장, 지원이답다. 나는 달아나는 지원이 뒷모습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지원이는 저렇게 가 버려선 안 되는 거였다. 어째서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자) 은비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 꼭지가 떨어진 수박을 마치 처음부터 따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일인지도. 줄기에서 분리되어 물을 공급받지 못해 배배 뒤틀려 마르다가 썩어 갈 수박의 아픔 따위도. 그런 것들은 나의 양심을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은비의 손이 따뜻했을 뿐이었다.

16. (가)에서 알 수 있는 앞으로의 사건 전달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이 긴박하게 흘러갈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며 전개해 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서술자가 이미 발생한 사건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전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공간의 변화에 따라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문학 작품에서 갈등은 사건을 일으키고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① 갈등은 사건을 일으키고 전개하므로,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 ③ 외적 갈등에는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개인과 자연, 개인과 운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등이 있다.
- ④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성격과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개인과 사회, 개인과 자연, 개인과 운명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있다.

2. 정답 ⑤

‘나도 먹고 싶다고 말을 보태려는데, 은비가 먼저 말했다.’를 통해 ‘나’가 지원의 호소에 동의하나 응답은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①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을 ‘학교 3대 악당’으로 지칭하고 평소와 같으면 다정이가 말한 것처럼 부드럽게 넘어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담임 선생님이 평소에도 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우리 지금 이 찻잔한 기분도 다 없어지고”를 통해 ‘나’는 수박을 나눠 먹음으로써 죄책감을 덜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③ 영주는 은비를 따라가 수박 사건에서 빠졌다.
- ④ ‘자타가 공인하는 육인방이다.’를 통해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3. 정답 ④

수박과 관련된 사건을 회상하며 ‘그 일’이 마치 꿈처럼 현실성 없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초현실적인 일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 ② 바라던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 ③ 실제로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4. 정답 ①

‘지기지우(知己之友): 자기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 ② 평생지기(平生知己): 평생을 두고 가까이 사귀는 친한 벗.
- ③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수어지교(水魚之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뜻으로,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죽마고우(竹馬故友):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

5. 정답 ②

(다)에는 수박을 딴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알리고 반 친구들과 다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 ‘나’와, 담임 선생님께 혼날 것 같아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친구들 사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① 지원이가 수박을 먹고 싶어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③ 사회와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친구들과과의 갈등만 나타나고 있다.
- ④ 담임 선생님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담임 선생님과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수박을 나눠 먹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정답 ①

(가)는 소설 구성 단계에서 발단으로 사건 발단의 중심 소재인 ‘수박’이 등장하고 있다.

- ②, ③, ④, ⑤ 아직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7. 정답 ②

“멀리서 시끌시끌 아이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가장 괴로운 사람은 당연히 지원이었다.”를 통해서 멀리서 다른 아이들이 오자 지원이가 뽐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괴로워했음을 알 수 있다.

- ① (나)에서 ‘나’가 말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 세영이가 수박을 발견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다)에서 수박을 지원이의 신발주머니에 넣은 것

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결국 ‘나’가 수박을 끌어안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8. [정답] ④

㉠에서 지원은 친구들이 말릴 새도 없이 수박을 따는 모습을 통해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에서 일단 문제에 처한 지원이 먼저 도우려고 하는 의리 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①, ②, ③, ⑤는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③

은비는 친구들에게 결단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말하지만 세영이는 은비와 지원이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엉뚱하게도 줄넘기를 하며 문제 상황에서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은비 입장에서는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③이 적절하다.

① 은비가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즐기자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② 은비 역시 공감을 먼저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④ 은비 역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⑤ 은비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 [정답] ③

“영주는 자주자주 우리 쪽을 보고 있었던 거다.”를 통해 친구들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수박을 처리해 주길 바라는 지원이의 부탁에 다정이가 응하는 것을 통해 다정이가 의리 있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평소 같으면 내가 한 두어 번 주의를 주면, 곤하던 행위를 멈추는 게 보통인데 오늘 지원이는 뜻밖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으응, 그렇지 뭐. 그래, 고맙다고 해야 되나?”라는 지원이의 말을 통해 지원이가 다정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정이는 가방 속 수박을 다른 친구들에게 들켜봐 조마조마하고 있으므로 지원이의 행동으로 인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11. [정답] ①

㉠은 먼저 가 봐야 한다는 지원이의 말이 예상 밖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수박을 딴 사람은 지원이므로, ‘나’는 지원이가 수박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② 친구들이 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③ 신발주머니는 지원이의 것이다.

④ 지원이와 함께 수박을 먹기로 한 적이 없다.

⑤ 지원이는 수박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

12. [정답] ②

지원이마저 가 버리고 ‘나’가 혼자 수박을 떠맡은 상황에서 홀로 수박을 처리하게 된 부담감과 친구에 대한 배신감 등이 합쳐져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에 가방도 무겁게 느껴진 것이다.

①, ③ 수박의 실제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④ 민아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⑤ 지원이가 자신의 짐까지 들도록 맡긴 것은 아니다.

13. [정답] ①

[A]에는 얼떨떨하게 수박을 보며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나, 수박을 먹겠다는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나’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②, ③, ④, ⑤는 적절하지 않다.

14. [정답] ①

지원의 심리는 나타나지 않고, 지원의 행동이 간접적 제시로 나타난다.

② ‘나’의 성격은 직접적 제시를 통해 나타나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성격은 말하기 방법을 통해 나타난다.

④ ‘은비’의 결단력 있는 성격과 ‘나’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대조하여 나타낸다.

⑤ ‘나’의 성격은 직접적 제시로 나타나므로 상상에 제한이 된다.

15. [정답] ⑤

㉠, ㉡, ㉢, ㉣은 과거 상황에 대한 진술이고, ㉤은 ‘나’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는 진술이다. 따라서 ‘과거 - 현재